

레위기

by The Reverend Gary Demarest

레위기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무슨 다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단하게 무시당하고 자주 잘못 사용되거나 매도 당한다. 무시하는 가장 좋은 예를 공동예배서 (Book of Common Worship)에서 발견할 수 있다. 3년 주기로 짜여진 lectionary 에 레위기에서는 오직 한 부분만이 사용 되었는데 - 19 장에 있는 열두절 - 이것이 이 성경공부에서 사용할 부분이다.

이러한 레위기에 대한 무지는 히브리 공동체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상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여러 세기동안 유대의 어린이들은 3 살 때에 레위기를 암기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교육이 시작된다. 탈무드의 거의 40 퍼센트는 삶과 예배를 위한 그 지침을 레위기의 본문에 의존하고 있다. 예수님의 때에는, 랍비의 유대교가 인정하는 613 개의 계명중 247 개가 레위기에 나오는 것이다.

무시당하지 않는다면, 레위기는 종종 잘못 사용되거나 웃음거리가 된다. 레위기의 본문이 어떠한 절대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레위기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인용 되기도 한다. 더 심한 경우, 간음하는 양측을 사형에 처하는 것 같은 전통이 책 전체의 정당성을 의심받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위한 신학위원회 구성을 필요로 하는 현재의 갈등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있다. 레위기에 대한 계속적인 무지와 남용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며 시정 되어져야 한다. 이의 시작은 성경을 부를때에 신약과 구약이라기 보다는, 특별히 옛것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문화 속에서, “Older” 와 “Newer” 성경이라고 부르자는 더글러스 존 홀 (Douglas John Hall)의 주장에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

복음을 새로운 (Newer) 성경 과 연관시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와 속죄, 율법과 은혜, 그리고 죄와 순종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심지어 제사장, 성막, 그리고 후의 성전에 관한 의미와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뜻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이다. 레위기는 크리스찬의 예배와 예식이 세워지는 기초를 깔아 놓았다.

유진 피터슨 (Eugene Peterson) 은 성경을 현대 언어로 번역하여 *The Message* 라는 책을 발행 하였다. 레위기의 서론에서 그는 말하기를:

모든 산 자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기위해 많은 가르침과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 레위기가 바로,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국가와 문화 속에서 적응되어지고 다듬어져야하는 그 “많은 가르침과 오랜 훈련”의 시작이다.

개관

레위기의 본문을 고찰하기 전에, 책 제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책 전체의 개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레위기” 라는 단어 자체는 고대의 두루마기 성경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고대 유대인들은 그 단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 성경에는 책의 제목이 “와이크라” 이며, 시작하는 구절의 첫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이다.

“레위기” 라는 영어 제목은 70 인역 성경(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과 라틴 Vulgate (4 세기의 라틴어 번역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영어 제목이 책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의 근본에 깔려있지 않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제목이 레위사람들의 제사직과 관련된 교범 외에는 별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줌으로 오늘날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1-10 장

사실, 처음 10 장은 위의 영어 제목이 주는 인상을 확인해 준다. 여기에는 일년동안 짜여지는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5 개의 제사 (1-7 장)에 대한 설명 -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 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에 대한 지시 (8-10 장)가 나온다.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5-40 장 까지 아는 것이 필수이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 8 장은 출애굽기 40 장의 연속이라고 보아도 무난하겠다.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두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먼저,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형성 과정에서 특정한 시대의 기록이라는 생각과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지켜야하는 명령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잊지말아야 할 것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인류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죄의 용서를 중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공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 이웃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레위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화, 일치, 순결과 관련되어 있다.

레위기의 처음 10 장은 신약의 히브리서와 분리시켜서 생각해 볼 수 없다. 5-10 장은 제사와 예수님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다.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주요한 주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레위기 첫 부분의 장들은 죄의 현실과 심각함을 확립해 준다. 죄는 보편적이며 피지기 때문에 -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만남을

찾기 위해서는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복들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하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우리의 대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생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한번에 완전하게 죽으셔서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최종적인 확인이다. 어떠한 속죄의 원리도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의 의미를 완전하게 내포하지 못한다.

레위기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체적인 예배의 중심을 확립해 준다. 성경의 이 부분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오늘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기대는 현대의 연예적인 문화에 의하여 강하게 형성되어진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우리들이 “예배 전쟁”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자체가 우리의 현실을 나타내는 슬픈 표현이다.

그러나, 도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배규범 (규례서)의 2 장에 나오는 6 가지 중요한 요소들과, 3 장의 예배의 순서에 관한 방대한 자료들은 진정함을 잃지 않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예를 제공한다.

11-15 장

이 부분은 흔히 정결법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은 잘못된 제목이다. 이 부분은 우리를 지금과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지만, 또한 아마 가장 불편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 있고 없는 사항부터 피부병의 치료와 부정한 장막을 정결케 하는 것을 포함하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정상적 혹은 비정상적 분비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의 다양한 것을 다루게 된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린이 설교의 본문을 이 부분에서 취하지 않을 것이며 목회자의 기도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본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는 11:44-45 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는 레위기에 3 번 더 나온다 (19:2; 20:7; 그리고 20:26). 이것은 예수님께 하셨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를 기억나게 해준다.

이 부분에 담겨있는 복잡한 이슈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주제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정도가 될 수 밖에 없다. 분명히 위생적 이슈들이 관련되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위생적 처리 이상의 것이다.

우리가 나누는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의 선은 그 당시와는 많이 다르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한다. 이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기록했던 메리 더글라스 (Mary Douglas) 는 부정한 것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의 쓰레기의 개념과 비슷한 면이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응접실에 쌓아놓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쓰레기가 악이 아니라, 그 장소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결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위원회가 일치와 순결에 지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정결이라는 것은 그들의 보기에 부정한 것을 없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성경 어떠한 본문을, 성경의 다른 부분들 아니면 특별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과 비교함이 없이, 본문이 담겨있는 전체의 배경을 신중하게 공부하지 않고 인용할 때에 종종 발생한다.

The Bible Speaks Today (InterVarsity Press) 시리즈에서 발간된 최근의 주석에 실린, 데이빗 드실바 (David deSilva) 의 말을 인용하면 정결법은 “어떠한 특정의 장소와 시간 (그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매우던 가에) 에서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불결은 한 사회가 갖고있는 질서와 안전의 개념에 맞지 않을 때에 붙여지는 단어이다.” (Leviticus, Tidball, p. 143).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의 이 부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식사와 예식과 관련되어 언급된 음식, 예식, 도덕적 규범에 관한 차이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왔다. 레위기는 이러한 단순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16 장

16 장은 Purity Code (정결법) 과 Holiness Code (거룩함) 의 중간에 위치한 내용으로, 움키퍼,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The Day” 라고 불리우는 대속죄일 (Day of Atonement) 이다.

과연 이곳에 기록된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들이 주전 6 세기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그 극치에 이르면서 발전하였는가에 관하여는 학문적인 논란이 계속될 것이지만, 현실은 70 년의 성전 파괴의 한참 이후까지도 이날은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된다는 것이다.

대속죄일은 오직 은혜에 근거한 하나님의 용서를 극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구약에서의 구원의 개념이 행위로 가능했다는 어떠한 제안도 레위기 16 장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의 신구약에서 보면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속죄양으로 - 사람들의 과거의 죄를 짊어진 속죄양이 광야로 내보내지고 -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은 그 양, 나의 죄를 지고 사라져버리는 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신약성경의 기자들이 이러한 속죄양의 예식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주후 130년의 ‘바나바의 서신’ 때까지는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개발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은 신약의 히브리서를 주석으로 읽어야 한다. 당신은 “주권적 정의와 사랑을 펴시는 자유 가운데서 세계를 창조, 보존, 통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지존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섭리를 긍정하는”(규례서 G-2.0500 a.) 개혁전통의 가장 중심된 사상을 새롭게 인식하며 감사할 것이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제사(희생)가 반복적으로 드려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식이 매년 드려져야 한다는 것은 그것의 부적당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7-26 장

레위기의 마지막 10 장은 흔히 성결법이라고 불리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제목이다.

변호사이며 신학자인 제가 존경하는 친구가 최근에 연락을 취하면서 레위기의 이 부분에 관하여 그의 통찰을 보내왔는데, 제가 보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성결법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히브리의 법적인 반영은 현대의 “규정”이라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규약을 일반화 시킴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 레위기의 법들은 규제화된 문서들 보다도 훨씬더 특정화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해석적인 사항이다. 레위기의 법들은 해석을 조건으로하며, 예외사항을 두고, 케이스마다 반영적으로 다루는 영, 미국의 판례법과 가까운 편이다. 모든 법은 전례의 가치를 갖고있으며... 어떤 경우는, 만약 있다면, 몇 개의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전례는 그들에게 등장하는 새롭고 다른 상황과 구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일반적인 성적인 문제와 특정한 동성애과 관련된 갈등의 상황에서 본문 전체를 사용할 사람을 별로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초점은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는 레위기의 18 장과 20 장에 의하여, 자신들의 특정한 입장을 옹호하는데 맞추어질 것이다.

레위기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배의 거룩함과 삶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서로의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 그를 따르는 순종의 길을 가도록 남자와 여자를 부르신다.

어떤 주석가들은 레위기 1-16 장까지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표현이고, 17-26 장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표현이라고 말한다.

레위기는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이 여정을 떠나는 우리리 모두의 주제들에 관하여 가르침을 준다. 성경의 이 부분은 21 세기를 지나는 교회 운영의 교범(manual)로 쓰여진 것이 아니며, 단순한 고대 역사의 흥미로운 기록도 아니다.

성경공부

레위기 19:1-2, 9-16 을 크게 읽도록 하라.

곧, 다음 구절이 레위기의 핵심이며 아마도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것이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19:18)

율법을 요약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잘 알려져 있는데, 신명기 6:5 과 레위기 19:18 로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눅 10:27)

레위기 19 장은 신앙과 삶의 가장 중심이라고 알고있는 10 계명의 모든 계명 (첫번째 계명 제외) 들과 관계된다. 중요하게도 Lectionary 는 복음서와 서신의 부분으로 마태 5:43-48, 고전 3:10-11, 16-23 을 레위기의 이 구절과 같이 다룬다. 마태 5:43-48, 고전 3:10-11, 16-23 을 읽도록 하라.

토의와 묵상을 위한 질문들

- * 당신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마틴 루터의 율법의 두가지 역할: 모든것의 책임을 추궁하는 선생님과 죄의 억제; 칼빈의 율법의 역할 - 순종하는 제자도)
- * 레위기와 같은 성경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며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어떤 긴장감을 경험하는가?
- * 레위기 19 장을 공부하시며 병행해서 야고보서 (Luke Timothy Johnson 추천)을 공부하시도록 권합니다.

레위기 19:12 과 야고보서 5:12
레위기 19:13 과 야고보서 5:4
레위기 19:15 과 야고보서 2:1, 9
레위기 19:16 과 야고보서 4:11
레위기 19:17 과 야고보서 5:20
레위기 19:18 과 야고보서 2:8

현대의 비전문적인 주석들:

Damarest, Gary. "Leviticus," *The Preacher's Commentary*. Nelson, 1990.

Tidball, Derek. "Leviticus," *The Bible Speaks Today*. Intervarsity Press, 2005.

후기

고대의 성경을 현대에 적용하는 변화의 과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일로서, 우리에게 최선 아니면 최악의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 1954년에 홀러 신학교에 새로 취임했던 에드워드 존 카넬 (Edward John Carnell) 박사는 취임사에서 신학교는 “학교에서 배운 자신들과 신학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관용과 용서로 받아주는 자세를 학생들이 갖도록 가르치는 곳”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이러한 논제는 레위기 19 장에 나오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잘려져 나간 기독교의 이해의 범위에 나타나는 관용하지 못하는 기독교 사상을 관찰하면서, 그는 “율법의 목적 중의 하나는 겸손이 우리의 삶에 입혀져야 한다는 최종적인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카넬 박사의 반대의 시각을 용납해야 한다는 기원은 아직도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한 관용의 사상은 우리 신념의 정직의 감소함이 없이 “복수와 편협함”을 “인내와 이해”에게 양보하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각은 “선한 것만을 추구하는 서로의 존엄성을 받아 들이게 된다.”